



4면

전북대 하계 펠링코리아 성료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윤 6월 20일) 제37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장애인체육 메카로 자리잡는다

도·전북장애인체육회
하반기 사업 본격 추진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장애영유아 체전 신설
9월 고창서 장애인체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하반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장애 학생·영유아 대상 체육대회 신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연간 1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이는 선수들이 생계와 고용 불안으로 타 시·도 실업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와 체육회는 실업팀 창단 대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마련해 우수선수 유치와 이탈 방지에 나선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일원에서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열린다. 초·중·고 재학 중이면서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학생 450여 명이 4개 종목에 출전하며,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전국대회 신인 발굴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도내 등록 장애 영유아 1,530명을 대상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영유아 체육대회'도 새롭게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 업무 협



소리축제 개막식 준비 분주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2일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관계자들이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약을 체결하고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충청권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영유아 체육대회가 전북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기대가 크다.

한편,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복도시 고창에서, 각종 가득 희망 체전"을 슬로건으로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경

기장 접근성·편의시설 개선, 안전대책, 문화 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철저히 준비된다.

도와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동호인리그전 지역 순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연령별 참여 기회를 넓히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형철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에 변화된 시도는 오는 9월에 개최될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위상에 맞는 장애인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체육 복지정책과 신규사업을 전북자치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계속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북대 의대생들, 학업 복귀 입장 표명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12일 입장문을 통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보내준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저희가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보내준 도민, 학교 구성원,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준 교수님들 덕분에 다시 강의실과 실

“복귀에 지원해준 도민·학교 구성원·교수께 깊은 감사

학업·실습에 충실... 신뢰받는 의사로 성장 위해 최선”

습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복귀는 단순한 수업 재개를 넘어, 무너질 위기였던 의학교육의 기반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국민

을 위한 의료의 길을 다시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수님들의 노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은 “복귀 이후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업과 공동체의 회복이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어진 교육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학문과 임상 실습에 성실히 임하고, 지역사회와 의료 현장에서 신뢰받는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13~17일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키워드 ‘본향의 메아리’

판소리시어터 ‘심청’, 개막공연으로

월드뮤직 등 77개 프로그램 91회 공연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완준, 이하 소리축제)가 개막 공연 ‘심청 PANSORI THEATER SHIM CHEONG’(이하 심청)을 시작으로 13~17일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24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를 키워드로 열린다. 올해는 국립극장과 공동제작한 개막공연 ‘심청’을 필두로, 도민 참여형 폐막공연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국창부터 시대의 명창,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까지 총 출동하는 ‘판소리 다섯바탕’, ‘산조의 밤’, 다양한 세계 음악,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 장르 시리즈 ‘성악 열전’, 대중성과 축제성을 두루 갖춘 클래식과 소리썰매나잇, 소리축제의 외연을 마켓으로 확장한 유통 플랫폼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 등 77개 프로그램 91회 공연이 준비됐다.

심청은 2023년 소리축제와 국립극장의 ‘공연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한 MOU’에 따른 공동제작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성과 실험성, 예술성과 대중성이 공존하는 무대 작품으로 향후 창극의 새로운 지평도를 제시할 수 있는 기대작이다.

특히 심청은 자기회생적인 심청의 효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심청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억압당했던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전통 판소리의 깊이를 고스란히 유지하되, 원전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 캐릭터 등을 자유롭게 변형해 서사를 새롭게 창작한 레지테이터(Regietheater) 방식으로 새로운 시선과 메시지를 담아낸다.

극본과 연출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이 맡았다. 2017년 오페라 전문지 오펜벨트 선정 ‘올해의 연출가’, 2020년 독일에서 권위 있는 예술상인 파우스트상에 후보에 이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판소리시어터 ‘심청’ 포스터

름을 올렸고 2024년 ‘탄호이저’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요나 김은 시공을 초월해 경계를 넘나드는 해석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 전달되는 보편적인 감성을 ‘심청’에 담았다.

창극의 중심이 되는 작창과 음악 감독은 창극 ‘변강쇠 집 짝고 용녀’, ‘귀토’, ‘리어’, ‘보허자: 허공을 걷는 자’ 등 국립창극단의 대표작에 참여해 온 한승석이 맡아 판소리가 지닌 본연의 매력에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다불어 세계 유수의 오페라 축제에서 활약해 온 독일 창작진이 무대 미술에 합류해 과격적이고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배우의 감정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라이브 카메라 기법으로 인물의 내면과 정서를 더욱 섬세히 전달하며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한편, 심청은 13~1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도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소리축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호흡할 준비를 마쳤다”며 “많은 분들이 축제 현장을 찾아 다양한 공연의 향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